

#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향한 첫 발걸음

“농업소득 배가 남의 일이 아닌 나와 우리가족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죠.”

강진군의 농림축수산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생산자, 전문가와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업소득 배가 정책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소득 배가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강진군은 2018년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2022년까지 농가소득 연간 6천만원 달성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소득 배가 정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업소득 배가 정책 추진위원회는 5년 동안 농업분과, 임업분과, 축산업분과, 수산업분과로 운영하며, 농업분과에 휴먼 소분과를 두어 가업 2세, 농업인 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정책 추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되었다.

공동위원장은 김선웅 농협중앙회강진군지부장, 부위원장은 안정근 강진군 직거래사업단장이 선출

## 조례 제정...추진위원회 출범식의 개최

### 관련 기관·전문가 등 적극 참여 결의



되었다. 농업분과위원장에는 오경배 강진쌀판매 참여업체협의회장, 임업분과위원장에는 남윤택 산림조합장, 축산업분과위원장에는 박종필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수산업분과위원장에는 박병석 강진군수협조합장이 선출되었다.

정책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는 분기 1회 운영하고 분과회의는 분과

위원장 주재로 자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엿보였다.

안병욱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농림축수산업의 다양한 계층의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5년 동안 농업소득 배가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

로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자 농촌으로 가는 새로운 성공 비법을 일으키자”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선웅 농협중앙회강진군지부장은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정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책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4월 6일 농업소득 배가 정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지원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추진위원회는 분기 1회 전체회의를 통해 분과별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수시로 분과회의를 하여 담당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피드백을 통해 농업소득 배가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 청년정책, 청년들 목소리 담는다

### 해남군, 청년협의체 발족

청년의 시각에서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해남군 청년정책협의체가 발족했다.

해남군은 지난 13일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30명을 위촉하고 군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위촉된 청년위원들은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49세까지의 청년 중 지난 1월부터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향후 2년간 해남군의 청년정책 추진 파트너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3일 행사에서는 전라남도 청년협의체(청년의 목소리) 임세훈 전 부대표를 초청해 우수 활동사례를 접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군 관련

부서에서는 청년관련 주요사업 설명과 함께 일자리, 문화, 농어업 복지 등 4개 분야 분과구성과 계획을 논의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향후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등을 거쳐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군정 정책 제안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으로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정책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해남군을 만들기 위해 청년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조속 지정 촉구

세계적인 조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군에서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4월 10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데 이어, 전동평 군수가 4월 13일 국무총리실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고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11개 사업에 대한 56억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영암과 목포가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김형광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영암군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조속한 현지 실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만간 영암이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대책추진에 필요한 사업은 반

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질지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대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이 가능해진다.

특히 영암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암군에서도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특별고용지원금과 사회적경제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부자유치기업 맞춤형 직접일자리 지원, 조선업퇴직자 심리안정 및 전직취업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을 발굴해 대처할 계획임을 밝혀 지역경제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 곡성군, 마을세무사 현판식 열어 홍보 박차

### 호남세무법인두암지점 대표 유권규 세무사 봉사활동

곡성군은 지난 12일에 마을세무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방문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농어촌 주민 등 세금과 관련하여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지역 세

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이다.

곡성군 마을세무사는 현재 호남세무법인두암지점 대표 유권규 세무사(☎062-269-6114)이며, 생활활동에 비쁨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부터 계속 무료 세무 상담을 통

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방문상담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현지 출장상담을 통하여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군은 올해 3월 석곡권역에 이어 5월, 7월, 9월에도 곡성 및 옥곡권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료 세무 상담



받기를 원하는 주민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곡성군, 친환경 범씨 온탕소독장 운영

### 오늘부터 농업기술센터서 운영...내달 10일까지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는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키다리병, 잎선충 등 종자전염 병해충 예방을 위해 ‘친환경 범씨 온탕소독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탕소독장은 노약자 및 소규모 농가 등에 종자 소독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며 농업기술센터에 설

치할 예정이다.

범씨 온탕소독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온탕소독기를 이용해 마른 종자를 65℃ 물에 7분 혹은 또는 60℃ 물에 10분간 담가 적신 후 찬물에 식혀 소독하는 친환경 종자소독법이다.

최근 화학약제의 오랜 사용에 따라 병해충의 약제저항성과 방제효

과 저하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범씨 온탕 소독은 이와 관계없이 친환경 재배에서 키다리병을 97%이상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소독법으로 알려져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농가에서 소독을 하려면 물 온도를 올리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가 온탕소독장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소

독할 수 있도록 온탕소독기 3대를 상시 가동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발생량이 많은 키다리병 등 종자전염병해충을 예방하려면 철저한 범씨 소독이 필요하다”며 “한 해 농사는 못자리 준비부터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곡성=김광휘 기자



지역광판미배정조정본직필 전인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 광주지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